

암!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암 조기 발견 사례

- ◎ 폐암 : 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남/58)는 지난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폐암 유소견 판정을 받고 파티마병원에서 검사 결과 폐암 확진을 받고 방사선 치료중에 있다.
- ◎ 간암 : 서울에 거주하는 박○○씨(남/44세)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 건강증진센터에서 간암 유소견 판정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검사 후 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 ◎ 위암 : 울산에 거주하는 박○○씨(남/45), 김○○씨(남/61세)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건강검사 결과 위암 의심 판정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았다.
- ◎ 유방암 : 수원에 거주하는 이○○씨(여/56)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에서 건강검사결과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고 아주대병원에서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고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중에 있다.
- ◎ 자궁암 : 대전에 거주하는 박○○씨(여/56)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자궁암 의심(calss IV) 판정후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중에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시·도지부 5대 암 검진 현황(2000년 6월 현재)

괄호 안은 암 확진자

지부	폐암 의심자	간암 의심자	위암 의심자	유방암 의심자	자궁암 의심자	비고
서울	-(-)	1(1)	-(-)	-(-)	11(-)	* 총 검사인원: 134,071
부산	3(-)	3(-)	28(-)	3(1)	2(1)	
대구	2(2)	2(-)	1(1)	1(1)	4(1)	
인천	-(-)	-(-)	3(1)	1(-)	2(1)	
울산	1(1)	1(-)	2(2)	-(-)	-(-)	
경기	2(-)	5(-)	2(-)	1(1)	-(-)	
강원	2(-)	1(-)	-(-)	-(-)	1(-)	
충북	13(-)	-(-)	3(1)	2(-)	1(-)	
충남	3(1)	2(1)	2(-)	1(-)	19(1)	
전북	-(-)	5(1)	18(1)	5(-)	-(-)	
전남	1(1)	3(-)	1(1)	2(1)	3(1)	
경북	1(-)	10(3)	2(-)	1(1)	3(-)	
경남	1(-)	1(-)	1(-)	1(1)	-(-)	
제주	-(-)	-(-)	-(-)	-(-)	-(-)	
총계	29(4)	34(6)	62(7)	18(5)	50(6)	
누계	118(9)	157(22)	258(52)	101(24)	235(41)	

◎ 폐암의 원인

폐암은 어느 암보다도 그 발생 이유가 가장 분명하다. 즉 폐암의 95%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발암물질에 의한 것이다. 또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높다. 물론 모든 흡연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폐암 환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담배는 폐암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폐암 판정을 받은 흡연자라면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 폐암의 증상

전형적인 폐암 환자의 모습은 50~60대의 도시 주민으로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다. 하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남자와, 흡연력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서 발견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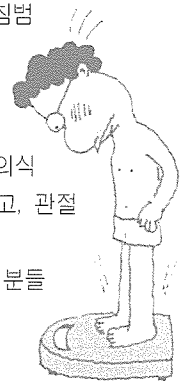
폐암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5%에 달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암의 자각 증상은 우선 식욕이 감소하고 체중이 줄며 권태와 피로, 호흡곤란 등을 느끼게 된다.

폐암의 초기 증상으로는, 잦은 기침과 가래가 많아지고 피를 토하기도 한다. 잦은 호흡곤란과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며 가슴, 어깨 등의 통증을 수반한다. 또한 쉼 목소리가 나고 상대정맥의 압박으로 머리, 목 또는 상지에 부종이 생기고(붓고), 그밖에 청색증, 두통, 의식 혼란 등이 온다. 폐암이 흉벽으로 직접 침범할 경우 주로 흉벽에 통증이 생기고 팔을 따라 통증이 전달된다.

흉곽 외 전이 증상으로 신경 증상과 뼈의 통증 또는 골절이 있다.

신경 증상은 뇌전이 때문에 생기고, 반신 마비, 간질, 성격 변화, 의식 혼란, 언어 장애, 두통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뼈에는 골전이 생기고,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

이외에 체중감소, 식욕부진, 허약감, 피로, 권태, 그리고 폐암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성분들에 의해 빈뇨, 혼미, 혼수, 저혈당, 관절통, 저나트륨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폐암의 전이

폐암은 주로 한쪽 폐로부터 시작하여 임파절, 그리고 폐 내의 다른 조직들로 전이되고, 결국은 양 폐 모두로 확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임파절이나 혈액을 통하여 몸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 폐암이 잘 전이되는 장기로는 뼈, 뇌, 간, 부신, 신장, 심장 등이다.

◎ 폐암의 치료

폐암은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는데, 비소세포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절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진단 시기가 늦어 제 3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수술 대상자 중 약 절반 정도이다. 3기 이후에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해야 한다.

소세포암은 대부분 항암제 치료를 시행한다. 국소적인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를 시행할 수도 있으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항암제 치료에 반응을 잘하지만 재발과 전이가 비소세포암보다 잘 나타난다.

◎ 폐암의 예방

담배를 끊고 난 후 5년이 지나면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의 발생률 정도로 낮아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금연이 곧 폐암 예방의 지름길이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등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폐암은 담배 외에도 대기 오염과 유독가스의 흡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대기 오염과 도시 환경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㉞

